

# 민주계 복귀 vs 안철수계 입성

광주·전남 4개 선거구에서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주목할 점은 이번 재보궐 선거가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역동성을 다시 갖게되는 계기가 되느냐다. 일단 각 선거구에서는 입지자들이 줄을 잇는 등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광주 광산 을=3선 의원 출신인 김효석 의원이 우선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 수석과 이근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공동위원장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전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구 특성을 반영하듯, 정치 신인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40대 주자로는 송갑석 전 전대협 의장, 이남재 전 민주당 대표실 차장, 정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 김철근 새정치전략연구소장, 이상갑 변호사,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50대 주자로는 박광운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김명진 전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의욱을 보이고 있다.

◇나주·화순=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나주와 새로운 활기를 찾아가는 화순이라는 점에서 역량 있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2년 동안 절치부심의 세월을 보낸 최인기 전 의원이 우선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 운동가 출신으로 지역 기반이 탄탄한 신정훈 전 나주시장도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다. 박선원 전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정영팔 전 광주전남기자협회

## 광주·전남 재보선 4곳 누가 뛰나

### 광주 광산 을

김효석·정찬용·정찬용 유력 거론

40~50대 정치신인을 대거 몰려

### 나주·화순

최인기 절치부심·신정훈 준비

홍기훈·박선원·홍석태 '자천타천'

### 순천·곡성

친노 서갑원·노관규 출마 채비

안축선 구희승·정표수 등 나서

### 담양·함평·영광·장성

김효석 전의원 출마 여부 변수

이개호·이석형 등도 강한 의욕

장도 변화를 이끌어 낼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홍기훈 전 국회의원과 홍석태 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 송영오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도 자천타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순천·곡성=서갑원 전 국회의원이 친노(친노 무현)의 대표주자로 나선다. 지역 조직도 아직 탄탄한데다 조중훈 무소속 시장과의 소통도 원활, 유력 주자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노관규 전 순천시장도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 측 인사로는 구희승 변호사와 정표수 전 공군소장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안 대표의 사촌동생으로 알려진 양효석 회계사의 이름도 나온다.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도 다크호스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곡성이 고향인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과 고재경 전 강기정 의원 보좌관도 의욕을 다지고 있다.

◇담양·함평·영광·장성=광주 광산 을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효석 전 의원의 행보가 최대 변수다. 장성 출신인 김 전 의원의 과거 지역구인데다 조직 기반도 아직 살아있다. 구 새정치연합 당시, 전남을 총괄 관리하는 등 안철수의 새정치를 상징할 수도 있다. 김 전 의원이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가 없어지면서 분부를 삼킨 뒤, 꾸준히 지역을 관리했던 이개호 전 전남부지사도 유력 주자로 꼽힌다. 이낙연 전 남지사 당선에 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기존 조직을 토대로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김연관 전 전남도의원, 정기호 전 영광군수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 광주·전남지역 재보선 출마 거론자

지역	출마 거론자
광주 광산 을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효석 전 국회의원 ▲정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 ▲김철근 새정치전략연구소장 ▲이상갑 변호사 ▲이남재 전 민주당 대표실 차장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정배 전 법무부장관 ▲김명진 전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석형 전 함평군수 ▲김연관 전 전남도의원 ▲정기호 영광군수 ▲김효석 전 국회의원 ▲정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
나주·화순	▲최인기 전 국회의원 ▲홍기훈 전 국회의원 ▲신정훈 전 나주시장 ▲홍석태 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송영오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정영팔 전 광주전남기자협회장
순천·곡성	▲서갑원 전 국회의원 ▲노관규 전 순천시장 ▲구희승 변호사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정표수 전 공군소장 ▲양효석 회계사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정치 재보선 주자 거물급이나 새 인물이나 논쟁

7·30 재보선 공천전략을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거물급이나, 새 인물이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학규·정동영 상임고문, 전정배 전 의원,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거물'들의 출마설이 무성한 가운데 이를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인사들이 있는가하면 현실적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486 인사인 우상호 의원은 지난 11일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토론회에서 "7·30 재보선 공천에서는 혁신적인 세대교체형 후보들이 득표율을 높인 6·4 지방선거의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며 "‘올드보이’들이 귀환하면 당이 변했다는 느낌도 안 주고 100% 진다. 올드보이로 찍힌 분들은 나

려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든 지역구에 새로운 인물을 공천하는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우세한 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호남 등 당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신진 인사들 간 경쟁을 통해 인적 쇄신을 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과 경쟁을 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무조건 새 인물을 내세우는 것은 선거 패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보선 성직에 명운이 걸린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도 일단 '새로운 인물론'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당장 안 대표가 전날 중진 차출론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선당후사'(先黨後私)를 언급한 것의 진의를 두고도 당내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선거공약 재점검...광주발전 도움 안되면 폐기”

尹광주시장 당선자측 “관사 이용 없을 것”...김용구 특보 해촉

윤정현 광주시장 당선자 '희망광주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2일 광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거공약을 과감히 폐기하고, 타 후보의 훌륭한 공약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또 시장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거주하며, 외적으로 광주와 전남 양쪽 인수위에 동시 참여해 물의를 빚은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원장은 공식 해촉했다.

송인성 준비위원장은 이날 광주시 서구 도시공사 사옥 내 준비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또 "타후보의 공약도 검토해 좋은 것은 수용하겠다"면서 "인사 시스템, 조직개편, 재정·입찰 등은 백지상태에서 점검한 뒤 개선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당선자의 외척인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원장이 전남지사 당선자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면서도 송 위원장의 특보로 활동하고 있어 '중복 참여' 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보가 특별히 필요한 게 아니다. 특보가 없는 것(해촉)은

조리했고 인수위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윤 당선자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선 5기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2019년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재검토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권 반납 여부가 공식 논의될 경우 광주의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은 물론 이번 선거로 양분된 지역사회가 또 한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가뜰이나 대형 국제대회 지원을 꺼리고 있는 정부의 지원금 축소와 함께 광주와 유치경쟁을 벌였던 부산에서 벌써부터 체육계를 중심으로 "광주가 반납하면 부산에서 가져오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송 위원장은 또 임기 말 '보은인사' 논란을 묻는 질문에는 "인사를 꼭 해야한다면 윤 당선자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F1 대회 존폐 여부 중장기 과제로 재검토”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 “업무·효율 중심 직제 개편”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가 F1 대회의 지속 또는 중단 여부를 중장기 과제로 다루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직제가 방만한 만큼 업무 중심으로 이를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 구체적인 시기로는 올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12일 "F1과 관련해서는 현안 특위 위원들의 의견도 반반으로 나뉘고,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이번 인수위에서는 지속할 때와 중단할 때의 과제를 선정해 뒤 (타 과약)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F1 경기 주 최 문제는 법률적 검토, F1 경기 조직위원회 등과의 면담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이 당선자는 "직제가 방만한 업무와 효율 중심으로 개편돼야 할 것 같다"며 "그러나 1년에 인사를 두 번 할 수는 없어 조직개편 후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결정에 대해서만 취임 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종합행정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해야할 일은 많은데 제약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는 오는 16일까지 각 실·국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장 탐방, 면담 등을 통해 민선 6기 구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중도금**  
없음

↓

**계약금**  
10%

↓

**발코니 확장**  
추가비용  
없음

↓

**전매제한**  
없음

↓

**선납할인**  
연 5%  
(변동금리)

↓

내 목포대성이 드리는

# 5가지 선물!

1억 7천만원대 저렴한 분양가

**6월 13일**  
공고

**내 목포대성 분양 및 10년 임대**  
총 1,391세대의 대단지

문의 061)243-0770 | LH 콜센터 1600-1004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본 인쇄물의 조감도 등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계획도이며, 인쇄과정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분양 및 주택정보관 방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